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2110-4868), 신용민 서기관(2110-4870)
박일철 사무관(2110-5412)

산업부, 에너지기본계획(안) 국회 보고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12.10(화) 국회 산업위에 **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내용**을 보고

□ 이날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**권고안을 최대한 반영**

□ 12.11(수)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

1. 에너지 수요와 믹스

< 에너지 수요전망 >

□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산정한 **에너지 수요전망(안)을 보고**

* 온실가스정보센터, 에너지경제연구원, 교통연구원 등 **전문연구기관 참여**

○ **(기준 수요)** 총에너지 소비는 **연평균 0.9%**씩 증가로, 1차 계획보다는 **증가세가 둔화될 전망** (1차계획 전망 : 연평균 1.4% 증가)

- **전력은 연평균 2.5% 증가로**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(1차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.2% 증가 전망)

	전 력	석 유	석 탄	도시가스	열에너지 등	에너지소비
'11년(백만TOE)	39.1 (19.0%)	102.0 (49.5%)	33.5 (16.3%)	23.7 (11.5%)	7.5 (3.6%)	205.9 (100%)
'35년(백만TOE)	70.2 (27.6%)	99.3 (39.1%)	38.6 (15.2%)	35.3 (13.9%)	10.7 (4.2%)	254.1 (100%)
연평균증가율(%)	2.5	△0.11	0.6	1.7	1.6	0.9

○ **(목표수요)** 총**에너지 소비**는 건물·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'35년까지 **전망치 대비 13.3%를 감축**하는 목표를 설정

-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**15%를 감축**하는 등 **최대한 증가를 억제**

□ 산업부는 에경연,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등 국내전문기관과, 국조실·환경부 등 **관계부처의 협의**를 거쳐 수요를 전망

< 원전 비중 >

□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·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, **22~29% 범위에서 결정**해줄 것을 권고

○ 원전의 **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**하고, 원전의 역할을 인정

□ **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안보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「**29% 수준**」으로 검토

< 신재생 비중 >

□ '35년의 보급목표는 **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% 유지**

2. 주요 정책 과제

<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, 수요관리를 강화 >

□ 전기 -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**에너지 세율조정** 등 추진하고, **ICT 기반**의 **수요관리 인프라**(스마트그리드, EMS 등)를 구축

<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>

□ '35년 **발전량의 15% 이상을 분산형 전원**으로 공급 (現발전량 5%), 송전선로 **여유부지**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

<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 >

□ '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, CCS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**최상가용 기술을 적용**

<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>

□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·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**질적 역량 제고**와 **민간부문의 역할강화**로 정책방향을 전환

□ **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,**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**안정적** 확보 추진

<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>

□ **에너지 바우처 도입**,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

□ 송전선로 건설,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·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**정책 투명성**을 제고

3. 금번 에기본의 특징

□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하고 이를 **정부가 적극 수용**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**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**

□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**수용성·안전성·환경성**을 균형 있게 반영

□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**가격정책과 세율 조정방향**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

□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**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**을 추진

4. 향후 계획

< 공청회 개최 >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**국민의견 수렴**을 위한 공청회를 12.11(수)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(10:00~12:00)할 예정

○ 정부안 발표 → 패널토의 → 질의·응답順으로 진행 예정

□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·시민사회·학계 전문가가 정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,

○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전비중,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대책,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

< 공청회 이후의 의견수렴 >

□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·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☎ 02-2110-48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